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새벽 잡지

2026년 7월

목차

『새벽』의 하이라이트.....	2
교회 - 1부	2
국제 성경 공부	21
믿음 있는 백부장	21
베드로의 회복	25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다	29
마리아—충성스러운 어머니.....	33
기독교인의 삶과 교리	37
하나님의 형상	37

성경과 함께 읽으세요!

교회 - 1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자칭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며, 그 이름도 매우 다양하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관해 서로 다른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가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참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교파가 합쳐져서 참 교회를 이루는 것일까요?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서두의 구절에서 언급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이 구절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 또는 ‘선별된 자들’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ekklesia)’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어 놓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5:19).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라는 단어가 종종 회중이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회중의 실제 모임 장소를 설명하는 데 ‘모임의 집’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사용된다면, ‘교회’라는 단어 자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교회’라는 단어를 단 세 번만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였고, 다른 두 번은 제자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해결하는 올바른 절차를 가르치실 때였습니다(마태복음 18:17). 이 단어가 다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2장 47절로,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삼천 명에 대한 기록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고만 간결하게 기술한 구절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진술 속에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 하루만 해도 삼천 명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 후에도 “매일” 새로운 회심자들이 더해졌으나, 물 세례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입교 예식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 모든 회심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설득력 있는 사역을 통해, 그들이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들이 서로를 세우기 위해 모이게 되자, 이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즉 프리스킬라와 아퀼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를 전합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초기 시절, 규모나 위치에 관계없이 각 신자 모임이 교회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각 신자 모임은 복음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별 모임들은 교파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치에 따라 구분되었으며,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신자 중 한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들은 소재한 도시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 일곱 교회가 오순절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시대에 걸쳐 모든 신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이는 ‘교회’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섬기도록 하신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을 묘사하는, 또 다른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 단어의 광범위하고 더 일반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라고 말할 때도 바로 이러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에 대해 다시 언급할 때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15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많은 지체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으며,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한 몸에 세례를 받아, 모두 같은 성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예비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즉,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인용한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점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히 어떻게 교회에 회원을 더하시며,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 성경은 교회에 나아가는 단계가 첫째,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인류의 일원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회개하며 인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4:6; 마가복음 2:17; 사도행전 26:20).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구속주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직 그분의 흘리신 피의 가치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38, 39; 16:31; 로마서 3:21-23; 5:1

그 다음으로, 구속주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뜻을 행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은 사람이 아니라, 또한 어떤 세속적인 조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 헌신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9:23).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지 짧은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사소한 쾌락이나 만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표현이 암시하듯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완전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마태복음 26:33, 34).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인정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추가적인 초청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주셨을 때, 그분 자신도 희생으로 생명을 내려놓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30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초대
받아들이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기독교 시대 초기에
일부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지만, 모든
이가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의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섬기고 고난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실제로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문제는 바울에 의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진 것”이라고
묘사된다(로마서 6:5).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에베소서 2:1).
그러나 그분의 흘리신 피의 공로에 대한 순종적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아담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제물이 되는 자로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기록하며 이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1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음

로마서 6장 3,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의 죽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언급된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세례’라는 단어는 ‘묻다’ 또는 ‘가라앉히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의 우리의 세례는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 안에 묻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므로, 죽음의 세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 생각이 “참수당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참수당한 자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참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바울은 이 점을 더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고린도전서 12:13).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이끌려,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 헌신이란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신실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0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더해 가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단계, 즉 회개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단계를 밟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예비성도로 인정해 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앞서 인용한 본문에서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에 묻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4). 우리는 “새 생명으로” 기쁘게 걸어가고 있는가?

바울은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우리 삶의 “과거의 시대”에 속했던 옛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매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사라졌습니까? (에베소서 2:3).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것들—즉, 신성한 봉사의 새로운 소명,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목표, 새로운 포부—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이 단계를 밟은 후, 우리의 옛 친구들과 친척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덜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멈추지도 않겠지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께 전념한 사람들의 방식이 종종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를 나타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9, 10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소명에 관한 말씀의 “깊은 것들”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응답하셨으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를 얻은 것이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에 대해 매우 확실한 확신을 주십니다. 먼저, 그분은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37). 그분은 몇 구절 뒤에 이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44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끄시는 능력을 느꼈다면, 이보다 더 큰 확신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걷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속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기쁨; 육체와 세상의 옛것들에 대한 흥미 상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느 정도의 오해, 어쩌면 박해까지; 영적인 것들, 특히 우리의 하늘의 소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점점 더 커지는 감사함—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헌신(봉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들입니다.

물 세례

물 세례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제기되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11). 그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요청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며,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13-15;
히브리서 7:26

요한의 세례는 유대 민족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온 민족을 대하고 있던, 곧 시내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의 회귀를 상징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또한 이후 사역을 시작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유대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5;
누가복음 1:13-17; 사도행전 13:24,25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시며 그분은 단순히 “지금은 그렇게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3:15).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그분께
있어 세례는 희생적으로 죽으시겠다는 언약의

상징이었으며, 신실함이 인정된다면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시리라는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행위가 이 두 가지 생각을 얼마나 적절하게 묘사하는지 보라. 세례를 베푸는 이가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할 때, 그 사람은 그의 손에 무력해지며, 물 밖으로 다시 들어 올려지지 않는 한 마치 죽은 자처럼 물속에 묻힌 채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그분의 왕국의 위대한 미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린다. 로마서 6:4,5; 빌립보서 3:10,11

그러므로 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진정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상징이다. 물 세례가 구원을 주는 예식이라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로 언약했으므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의 일부임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것이다. 그 외의 어떤 태도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

성경은 기독교 초기 시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여러 지역 공동체들이 정교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언급하지 않으며,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였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은 질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역의 특권이 서로 다른 이들에게 배정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15; 고린도전서 14:40; 데살로니가후서 3:6,7; 디도서 1:5

초기 교회 조직에서 예수님은 만인의 머리로서 널리 인정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스승은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씀하신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8).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니, 그는 몸의 구주이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에베소서 5:23). 고린도전서 11:3에서도 그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고 말하며 동일한 생각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기초이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11). 교회의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집안”이라 불리는데, 이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모퉁이 돌로 삼아 지은 것”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19,20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성경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여 귀한 모퉁이 돌을 놓으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6). 요한계시록 14:1-4에서 사도 요한은 또한 예수님이 시온, 즉 완성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심을 확증합니다. 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오해를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마태복음 16:18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바위”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다른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페트로스(petros)”로, “바위 조각”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페트라(petra)”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 즉 말하자면 ‘거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께 “당신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참이었습니다(마태복음 16:16).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 이름은 네가 작은 바위 조각, 즉 자갈과 같음을 의미한다. 네 이름의 의미와 비교할 때, 내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사실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 즉 거대한 바위와 같으며, 교회는 나를 그 기초로 삼아 세워질 것이다.”

다음 달 『새벽 잡지(The Dawn)』에서는 “교회”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논의될 주요 주제에는 열두 사도와 교회의 다른 종들의 역할, 교회의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천상적 단계와 지상적 단계가 포함될 것입니다.

7월 5일 수업

믿음 있는 백부장

핵심 구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 8:10

선정된 성경 구절:

마태복음 8:5-13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던 동안,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것을 포함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록에는 그 종이 착한 종이였다는 문구적 기록은 없지만, 백부장이 질서 정연한 사람이었다는 추론은 타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순종하는 종을 찾고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자신이 시키는 대로 종들이 행하는 데 익숙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종을 직접 찾아가 만지지 않으셔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8:5-9

오늘의 핵심 구절은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된 메시아이시라는 진리를 믿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를 차지하리라. 그러나 천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내쫓길 것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종이 나왔다.” 마태복음 8:11-13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6). 그러므로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들은 하늘의 부르심 아래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없으며, 오직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세워질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 마태복음 6:10

오순절 날부터 3년 반 동안, 즉 고넬료가 첫 이방인 개종자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하늘 왕국 계층의 핵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을 방해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가르는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14). 그때부터 현재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유대인 중 신실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 민족은 전반적으로 배척당하여 세상의 “어둠”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거의 20세기 동안 “울며 이를 갈”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민족적 맹목에서 구원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31:31-34).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땅의 모든 족속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3; 28:14

하나님께 전념한 성도들은 이 놀라운 섭리에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는가. 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영원토록 평화와 의를 세우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에 순종하여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땅
위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1-5

베드로의 회복

핵심 구절: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5

선별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8:15-18, 25-27; 21:15-17

부활하신 후 사십 일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간헐적으로만 보이셨지만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승천하신 후 그들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해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건 중 하나는 “티베리아스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1:1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지시하신 후 기적적인 어획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해변에서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그곳에서 계신 낚선 분이 부활하신 주님임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확신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1:3-6

행동파였던 베드로는, 이전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일로 여전히 마음속 깊은 아픔을 안고 있었기에,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해안으로 향했으나,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분명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기다리며,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해안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배가 해변에 닿아 모든 것이 단단히 고정되고 안전해졌을 때, 낚선 이가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는 지친 이들에게 “와서 함께 식사하라”고 초대했다. 요한복음 21:7-12

세 번에 걸친 비슷한 질문 중 첫 번째에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일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마음이 상했다. 그가 대답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6,17

베드로를 떠올리면,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스승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얼마나 찢렸을까요? 그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입에서는 저주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마태복음 26:69-75). 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깊은 교훈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사실상 그를 안심시켜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 주님의 합당한 종으로 회복된 후 자신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을 희생의 제단에 바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행하는 일에서 공정하고 의로우며 순결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기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할 것입니다. 시편 136:1-26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다

핵심 구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보시니
그 사람이 보이자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누가복음 19:5

선정된 성경 구절:

누가복음 19:1-10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에 살던 부유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인 그는 세리들이 납세자들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경멸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자, 기록에 따르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으나 키가 작아 군중 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자 앞서 달려가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누가복음 19:3,4

이 핵심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능력을 지니셨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구경꾼들의 오만함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스승께서 자신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9:6,7

그 후 삭개오는 배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는 네 배로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누가복음 19:8). 모세의 율법은 일반적으로 네 배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피해액에 5분의 1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레위기 5:14-16; 민수기 5:5-7). 삭개오는 그 이상의 일을 행한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셨다. 이는 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일 만한 성품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받았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누가복음 19:9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념한 신자로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과 매우 가까이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 줍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죄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의도치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고의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의 행위가 발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회복되려면 이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와 거룩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죄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있어 두 가지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저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 교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유대 시대의 말기와 육적인 이스라엘에 속했던 이 사건과, 이 시대의 말기와 영적인 이스라엘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언약에서 타락한 자들을 발견하는데, 이는 샅대야가 주님의 율법의 언약에서 타락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느 정도 죄 가운데 살며, 자신들도 부당하고 양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즉 큰 기쁨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 중 누군가가 현재의 진리에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 주님이시자 머리이신 분이 삭개오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타인, 특히 믿음의 가족인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본받아야 할 놀라운 모범을 봅니다.

마리아—충성스러운 어머니

핵심 구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였다.”

누가복음 2:19

선정된 성경 구절:

누가복음 1:26-56; 2:15-19; 요한복음 2:1-5; 19:25-27

오늘의 교훈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인구 조사 명령에 따라 등록하러 온 여행자들로 가득 찬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그 군중 속에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과, 아이를 임신한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해 왔으며, 먼지 자욱한 길을 헤쳐 나가며 봄비는 마을에서 숙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3**

그 근처,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천사가 함께했습니다. 누가복음 2:8-14

기록은 이어집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 일어난 일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았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이 아이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를 널리 알렸는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목자들이 전한 말에 놀라워했다.” 누가복음 2:15-18

마리아에게는 일어난 모든 일이 당혹스러웠고, 본문은 그녀가 이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비록 몇 달 전 천사가 그녀에게 “다윗의 왕좌”를 물려받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었지만, 마리아는 아들과 관련된 이 신성한 계획의 전모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약 3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그 후 2천 년에 걸쳐 형성될 제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실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서 죄와 고통과 죽음을 근절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반열에 속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피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육신의 쾌락에 영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2,3). 죄가 되지 않는 많은 활동들이 육신을 기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정 금령들과 달리,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랑과 의의 법의 “정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로마서 7:6

우리는 이 본문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를 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2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느니라.”
창세기 1:27**

철학자들은 오늘날의 인간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진보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진화가 우리를 이 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주장은, 과학자들이 계산에 의해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 존재해 왔으며 세대마다 발전해 왔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진보해 왔으므로, 그들은 인류가 이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결론 짓는다. 과연 이 철학이 옳은가?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단순한 철학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쁘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여호와와 그의 집에

들어가자”라고 초대하셨으며, 그분의 지혜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편 122:1

우리는 이 정보의 원천인 성경을 통해, 인간이 “땅에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음을 배웁니다. (고린도전서 15:47; 창세기 2:7).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거나 주입하심으로써, “사람은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간결한 인간 창조 묘사에는,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로 진화하거나 덜 복잡한 종류가 더 복잡한 존재가 된다는 암시는 조금도 없다. 창세기 1장에서 읽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종을 별개이며 구별되는 생명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준비하기 위한 각 단계가 끝나고, 식물과 물고기, 새, 땅의 생물들이 각각 창조된 후,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10, 21, 25, 31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된 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이 복수형으로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이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 모두가 여러 면에서 그분과 매우 유사할 것임을 의미했음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어로 “형상”과 “모습”이라는 단어는 닮음이나 본모기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완벽한 인간인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의 본모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육체적인 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훨씬 우월한 존재, 즉 영적인 존재이시며, 인간은 단지 땅에서 나온 육체적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닮음, 즉 형상은 인간의 추리 능력, 기억력, 추상적 및 직관적인 개념을 인식하는 능력,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지적·미적 자질을 소유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인 아담에게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신과 같은 양심의 속성이 주어졌다. 그는 선택의 능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했을 것이며, 우리의 행동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며, 개개인의 성품을 발전시킬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아담은 죄를 선택했다

아담, 그 영광스러운 최초의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은 모두 그의 안녕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순종하면 살 것이요, 하나님의 공정한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창세기 2:15-17). 창조주의 지시는 매우 간단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아담의 책임은 그 자신의 선택의 자유에 달려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가 완전함에서 타락한 결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온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유산으로

인해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다. 시편 51:5;
로마서 5:12

죄와 죽음의 통치는 계속되어 왔으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날 때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될 구속자, 구세주, 곧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히브리서 2:9). 의로운 심판()에 따른 죽음의 선고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조치는 자유로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로마서 5:15-18

우리의 첫 조상들이 죄에 빠진 결과, 그리고 그 이후 수세기에 걸쳐,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식별하게 했던 그 특성들은 전 인류 중에서 비교적 소수에게서만 뚜렷한 정도로 발견되어 왔다. 실제로, 어떤 고귀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위엄 있는 성품에서 비롯된 그러한 은혜를 기르려고 노력해 왔으나, 다른 이들은 단지 신성함의 겉모습만을 흉내 냈을 뿐이다. 이러한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쾌한 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첫 조상들을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신 진정한 성품의 순수함은 그들의 마음속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참된 은혜가 부족한 자들과는 함께 일하실 수 없으므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비와 사랑의 자질을 보여준 인류 중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시대를 통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생애의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고귀한 자질들을 보여준, 그 은혜를 입은 이들 중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교훈

나중 해에 솔로몬은 자신의 선택의 자유로 인해 수많은 아내들의 요구에 휘둘리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이전에 거룩한 선지자 나단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던 사려 깊음, 통치 능력,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듯했습니다.

다윗이 늙어 통치하기에 너무 쇠약해지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스무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다. 우리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드린 기도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아들을 둔 아버지라면 누구나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염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아들이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얻고, 그분과 함께 바르게 행하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

역대기상 28장 9절과 10절에는 다윗이 아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소원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다.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겠으나,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제 잘 생각하라. 주님께서 너를 택하사 성소로 삼을 집을 짓게 하셨으니, 힘을 내어 그 일을 행하라.”

주님께서는 다윗이 평생 꿈꿔왔던 성소 건축을 위해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나단의 도움과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에 곧바로 동참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데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던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천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창조주께 이 큰 제물을 준비했다. 기브온에 머물던 중, 이 젊은 왕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열왕기상 3:5).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대답을 했다. 솔로몬은 말하였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 주의 종에게 백성을 재판할 분별력을 주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큰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열왕기상 3:7-9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시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열왕기상 3:10, 12). 그의 이기심 없는 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영광도 네게 주었으니, 네 평생 동안 너와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내 길을 따라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수명을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13, 14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나자,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언약궐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열왕기상 3:15).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돌과 목재가 어떻게 준비되고 다듬어지며 제자리에 놓일 위치가 표시되었는지, 그리고 준비가 다 된 후에야 비로소 건축 현장으로 운반되었는지 기억합니다.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으며,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 혹은 철제 도구의 소리 없이도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6:7). 이 위대한 성전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준비되었지만, 건축 예정지로 옮겨졌을 때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얼마나 큰가! 우리는 결코 시간을 무심코 허비하다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갑자기 기적처럼 왕의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적합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준비의 때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적 성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자리를 위해 지금 바로 다듬어지고, 깎이고, 연마되며, 그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더 위대한 구조물을 예표했음을 깨닫습니다.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고린도후서 6:16).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다듬어지고 수고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전서 3:9; 에베소서 2:10; 빌립보서 1:6; 2:12,13). 모든 조각,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동안 — 이 “비뚤어지고 굽은” 세상 한가운데서 — 준비가 완료되면, 그들은 상징적인 하늘 성전 안에서 제자리에 맞춰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15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에는 큰 기쁨의 축하가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8:65, 66).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그리스도께서 완성되고 모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실 때 하늘과 땅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은 그 성전의 완성을 통해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는 마치 육적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던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19-22; 요한계시록 3:12; 21:22-26

오늘날

이 시점에서 현명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 시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전히, 자신에게서 인간의 본래 모습을 어느 정도 닮은 이들을 향해 초청의 손길을 내미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본래의 자질을 지닌 이들은 솔로몬이나 과거 시대의 다른 고귀한 인물들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초청과 봉사에 응답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분의 독생자의 발자취를 따르며 삶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부르심의 사역과 그에 수반되는 연마와 다듬음, 형상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로 하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제시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28,29

이 성경 구절은 미리 정해진 한 무리, 즉 교회가 아버지의 형상이자 본보기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중 누구도 이 생애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이 영광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2; 히브리서 5:4

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초대를 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여 그들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그분의 은혜로운 공급 덕분에 우리가 이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기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대속 희생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정하여, 비록 우리 자신에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61:10; 로마서 12:1; 에베소서 1:5-7

이 중요한 단계를 밟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본을 닮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에 있는 것들에 두어야 합니다(골로새서 3:2). 새로운 뜻과 새로운 마음은 성령의 열매와 은혜를 맺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닮기 위해서는 항상 이러한 성품적 자질을 개발하고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22,23; 베드로후서 1:5-7).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정서는 추구해야 하지만,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형성하시는 영향력 아래에서 일생 동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일입니다.

주님과 진리, 그리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과 동정

어린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는 신음하는 피조물, 심지어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인 원수들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2:37-39; 요한복음 13:34,35; 누가복음 6:27,28

마음의 순종

잠언 4:23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일부가 될 권리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흙 그릇에 담긴 보물”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짐과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7). 그러나 아담, 솔로몬 왕,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누구에게 마음의 순종을 바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나 진리, 혹은 형제들을 섬기도록 강요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신 성전 안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며, 이는 오직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9; 고린도후서 3:18

아마도 우리는 신실한 자로서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일의
주인으로 삼으리라. 네 주인의 기쁨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21)라는 말씀을 듣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그 경험이 어떠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장 너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모양에 연합되었으면, 부활의
모양에도 연합될 것입니다.” (로마서 6:5).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즉 정확한
본보기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봉사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며, “선한 일을 인내로
계속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주님이시자 머리가신 분과 같이 만들어질

것이며, 모두 하나님의 신성한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2:7

“명백한 형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로고스”로서 인간이 되기 전 천사로서의 상태에서도 아버지의 형상을 닮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의 성품은 언제나 아버지의 성품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제 “높으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히 띠고 계시며, 신성한 본성을 나누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 빌립보서 2:8,9; 골로새서 1:15

또한 우리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실 때[그리스어: 드러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를 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그분 안에 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1-3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보다 위대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0:29; 14:28; 고린도전서 15:24-28).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섬김으로 인해 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대가를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순종하는 데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예수님의 신부이자 그분의 몸인 교회의 “부름 받고, 택함 받고,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14; 19:7,8; 21:2; 고린도전서 12:12,27). 이들은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신실하다면,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0).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지으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흠으로 된 자[아담]의 형상을 입었듯이, 하늘에 속한
자[하나님의 형상]의 형상도 입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9, 10; 고린도전서 15:49